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의의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Trend and Significance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With a Focus on Cases of Other Countries

윤 정 옥(Cheong-Ok Yoon)*

목 차

- | | |
|--|---|
| 1. 서론 | 2. 3 캘리포니아주의 ‘분노의 포도’
읽기(Reading ‘The Grapes
of Wrath’) |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
|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 4 캐나다의 ‘Canada Reads’ |
| 2. 주요한 ‘한 책’ 운동의 사례 | 3. ‘한 책’ 운동의 현황과 특성 |
| 2. 1 시애틀 온 시민이 책 한권을 같이
읽는다면(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 | 4. 결 론 |
| 2. 2 한 책, 한 시카고(One Book, One
Chicago)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의 특성과 결합된 독서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고찰하고, 전체적인 ‘한 책’ 운동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 시애틀의 ‘시애틀 온 시민이 책 한권을 같이 읽는다면’, 시카고의 ‘한 책 한 시카고’, 캘리포니아주의 ‘분노의 포도 읽기’ 및 캐나다의 ‘Canada Reads’의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239개 ‘한 책’ 운동의 목표, 선정 도서, 토론 지침 및 제반 프로그램의 전반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한 책’ 운동은 독서와 토론 중심이지만 다양한 매체와 행사를 결합한 개혁적, 지속적 독서운동이며,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및 다양성을 반영한 도서 선정, 프로그램의 진행 등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by studying cases of four communities: ‘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 (Seattle), ‘One Book One Chicago’ (Chicago), ‘Reading’ ‘*The Grapes of Wrath*’ (California) and ‘Canada Reads’ (Canada), and analyzing objectives, selected books, discussion guides, and programs of 239 ‘One Book’ campaigns. ‘One Book’ reading campaign can be characterized to be successful for combining various media and events with reading and discussion of written text, and largely dependent upon cooperation between public libraries and communities and their diversity in selecting books and conducting programs.

키워드: ‘한 책, 한 도시’, 공공도서관, 독서운동, 지역사회 운동
‘One Book, One City’, Public Libraries, Reading Campaign, Community Movement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jade@cju.ac.kr)
논문접수일자 2004년 7월 28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9월 10일

1.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미국의 시애틀시에서 1998년 처음 시작된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이하 '한 책' 운동이라 부름) 운동은 금세기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수행된 가장 두드러지는 독서 운동의 하나이면서,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개혁(innov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책' 운동을 통해, 한 지역사회에서 선정된 한 권의 책을 온 시민이 함께 읽고 토론한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공공도서관이 전자정보와 영상매체에 탐닉하는 대중에게 '다시 책으로'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노력은 이전까지 지역사회에 파고들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공공도서관의 전통적 사명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육년 여 동안 미국 전역과 다른 나라에까지 '한 책'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같은 '한 책' 운동의 개혁적 시도가 현재까지는 성공적임을 알 수 있다.

미국 및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책' 읽기 프로젝트들이 등록되어 있는 미국 국회도서관 도서 센터(The Center for the Book)의 웹 사이트에 따르면, 2003년 5월에는 모두 38개 주 90여 개 도시에서 '한 책' 운동이 진행되었고, 미국 밖에서는 캐나다만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었으나, 9월에는 미국 국내 46개 주 및 영국과 호주가 진행한 모두 153개의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었다. 2004년 5월 현재에는 미국 내 48개 주의 239개 지역

에서 이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있어, 주(州)마다 적게는 하나에서 많게는 십여 개 이상의 지역사회에서 이 '한 책' 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불과 6년 사이에 매우 빠른 속도로 미 전역에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LC 2004a). 국내에서도 한국도서관협회와 충남 서산시가 지난 해 10월 황선미의 작품인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도록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던 '서산 시민 모두가 책 한 권을 함께 읽는다!'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순천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각각 독자적으로 추진한 '한 책' 운동은 영불 이중 언어권인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운동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되었다(박미희 2004; 양동의 2004; 부산광역시교육청 2004).

'한 책' 운동은 그 주도 세력이 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시 혹은 시민의 문화적 역량, 결집도, 그리고 독서환경의 성숙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하는 모든 지역사회가 확실히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한 책' 운동을 수행한 국내외의 도시들에서 독서 분위기가 북돋워지고, 시민이 도서관으로 향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울과 청주 등 여러 도시에서 '한 책' 운동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때, '한 책' 운동이 국내 환경에 알맞은 독서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책' 운동의 시작과 목표, 현황 및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지금까지 '한 책' 운동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미시건 주의 이스트랜싱(Watkins 2993a), 미시시피주의 잭슨(Sumner 2003),

버지니아주(Michalik 2004)와 같이 몇몇 특정한 지역사회에서 수행된 개별적 '한 책' 운동의 사례가 보고 된 적이 있다. 그러나, 다양하게 진행되는 '한 책' 운동의 전반적 의의와 특성을 광범하게 다루고 일반화시킨 연구문헌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주요한 '한 책' 운동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의 특성과 결합된 독서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고찰하고, 전체적인 '한 책' 운동의 경향과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한 책' 운동을 수행한 주요한 도서관의 웹 사이트와 참고자료를 분석하여, 각 도서관 사례의 특성을 서술하도록 한다. 사례연구를 위해서는 '한 책' 운동의 연원이 된 시애틀 공공도서관이 주관한 '시애틀 온 시민이 책 한권을 같이 읽는다면(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 '한 책' 운동의 확산에 크게 기여한 시카고의 '한 책 한 시카고(One Book One Chicago)',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를 읽도록 행사를 주관하였던 캘리포니아 인문학 위원회(California Council for the Humanities)의 '분노의 포도 읽기(Reading *The Grapes of Wrath*)' 및 캐나다 전역에서 진행된 'Canada Reads'를 중심으로 각 사례에 나타난 '한 책' 운동의 구체적인 목적, 행사 및 성과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또한 2004년 6월 현재, 미국국회도서관의 웹 사이트에 등록된 239개 '한 책' 운동의 내용을 살펴보고,

선정 도서, 토론 지침, 제반 프로그램 및 행사의 전반적 특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2. 주요한 '한 책' 운동의 사례

2. 1 시애틀 온 시민이 책 한권을 같이 읽는다면(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

맨 처음으로 시작된 '한 책' 운동은 시애틀 공공도서관의 시애틀 도서 센터가 주관한 '시애틀 온 시민이 책 한권을 같이 읽는다면(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 프로젝트였다. 당시에 '한 책'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프로젝트의 핵심에 그 개념이 들어있었다. 센터는 "글(the written word)을 찬양하고, 문학작품을 읽음으로써 불러일으키는 생각의 교환을 촉진하도록 헌신한다"는 사명을 기반으로 하여, 시 자체가 하나의 확장된 독서토론 그룹이 되도록, 시민의 독서 환경을 조성하자고 하였다(SPL 2003a). 1989년에 설립되었고, 미국 국회도서관의 도서 센터와 연합하는 50개 주(州) 도서 센터들 가운데 하나인 시애틀 도서 센터가 가지고 있던 목표는 "... 광범위한 청중 -- 확실한 도서애호가로부터 아직까지 책과 독서는 자기들의 삶에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사람들까지 -- 에게 호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으며, 이 '시애틀...'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한 사람의 주요한 현대작가를 초청하여 그의 작품을 읽고 토론하며 그에 관련된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

라고 기대하였다(SPL 2003b).

도서의 선정

센터는 프로젝트의 첫 해인 1998년에는 Russell Banks의 *The Sweet Hereafter*, 1999년에는 Ernest Gaines의 *A Lesson Before Dying*, 2001년에는 Bill Moyers의 *Fooling with Words: A Celebration of Poets and Their Craft*, 2002년에는 Molly Gloss의 *Wild Life*를 각각 선정하였고, 2003년에는 한국 출신 작가인 이창래의 '*A Gesture Life*'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Seattle Reads...'로 바꾸고 한 작가의 한 작품 대신, 한 작가를 선정하여 그의 주요한 여러 작품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보다 심화된 독서활동을 수행하도록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에는 'Seattle Reads Isabel Allende'를 주제로 정하여, 칠레 출신의 작가인 Isabel Allende를 선정하고, *My Invented Country: A Nostalgic Journey through Chile*, *City of the Beast*, *Paula*, *The Infinite Plan* 등 일곱 편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SPL 2003d).

이 프로젝트는 월러스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금이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성한 "Reading Across the Map"이라는 프로젝트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읽을 책을 선정하는 데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 독자 등 참여자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센터는 다음번에 어떤 자료를 선정할 것인가 사람들로 하여

금 제안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작품이 있는 주요한 작가, 시애틀에서 행하는 여러 행사에서 독자와 토론에 참가할 용의가 있는 작가이어야 하고, 작품은 뛰어나면서도 토론할 수 있는 책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자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삶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잘 발달된 등장인물"이 있는 책이라는 조건을 갖는다. 말하자면 독자들이 독서와 토론을 통해 자기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한 책'을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서 및 토론 지침과 자원

센터는 작가가 방문하기 전에 2~3개월 동안 수백 권의 도서를 배포하고, 동시에 '연장통(toolbox)'이라고 불리는 독서토론 자료집을 만들어 작가 소개, 작품의 배경 자료와 연구 및 토론 지침 등을 수록하고 도서관과 서점 등에서 배포하여 독서와 토론의 길잡이로 사용하게 한다. 이 '연장통'은 개인의 독서를 위한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수록된 '독서 클럽 지도안'은 토론을 위하여 책 고르기, 특정한 책을 토론하기 좋은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독서토론을 위하여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토론을 인도하기, 토론을 위한 질문의 보기 등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 언제든, 어떤 책에 대한 독서토론에든,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어, 누구든 독서토론의 인도자 혹은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의 선정 도서인 이창래의 *A Gesture Life*를 위하여 마련한 '연장통'에는 작가의 신상과 작품 활동에 대한 간략한 전기적 정보를 소개하고, 서

울에서 발행되는 계간지 <KOREANA>(10권 2호, 1996년 여름호)에 수록된 “정체성의 드라마: 이창래와의 대화”라는 기사를 캐나다의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아시아 연구학과 브루스 폴턴 교수가 영역하여 게재하였다. 또한 이창래의 대표적인 두 작품인 *A Gesture Life*와 *Native Speaker*를 읽고 토론할 수 있도록 각각 열두 개와 아홉 개의 질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독서 클럽 지도안(How-To’s)’과 추천도서목록을 수록하고 있다(SPL 2003c). 한편 2004년의 선정 작가인 Isabel Allende의 ‘연장통’은 영어와 스페인어 2종으로 마련하여 역시 작가 약전, 행사 및 독서 토론 스케줄, *My Invented Country* 등 선정 도서 7종에 대한 토론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004년에 진행된 주요한 행사는 영어, 스페인어 라디오 인터뷰, 도서관, 지역사회센터, 시청에서 열린 작가와의 만남, 작가의 작품 낭송회 및 시애틀 공공도서관의 중앙도서관, 분관, 지역의 대학, 교회, 커피숍 등에서 모두 20회 열린 독서토론회를 포함하고 있다(SPL 2004). 시애틀의 ‘한 책’ 운동은 이 같이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였고, 또한 도서의 선정, 토론, 평가 등의 전 과정에 시민이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누구든 토론의 인도자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 개인이 참여자이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더욱이 시애틀 공공도서관이 전적으로 주관하는 행사이지만, 지역사회의 신문, 방송, 기업, 학교 및 개인과 각급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해서 시애틀 시와 시민 전체가 ‘한 책’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2002년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약에 모든 어린이들이 같은 책을 읽는다면(What If All Kids Reads the Same Book)’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Louis Sachar의 작품 ‘*Holes*’를 위한 독서토론 그룹을 후원하고, 시애틀 어린이극단은 이 책에 기초한 연극을 제작함으로써 독자와 함께 다양한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어린이들은 작품을 읽고 학교와 도서관에서 토론하고, 드라마 워크숍에서 연기하고, 작가의 방문 및 대화에 참여하며, 소설에서 발견된 주제에 바탕을 둔 글짓기, 미술, 공연 등 다방면의 활동을 통하여 ‘더 깊이 파고드는(dig dipper)’ 창의적인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도록 격려”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SPL 2003e). 이후에 어린이를 위한 ‘한 책’ 읽기가 따로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2004년에는 Allende의 작품 가운데에 청소년을 위한 *City of the Beasts*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도 ‘Seattle Reads’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애틀 공공도서관에서 시작된 ‘한 책’ 운동은 이처럼 공공도서관이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파고 들 때,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까지 그 영향력을 파급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보여 주는 선명한 사례가 되었다.

2. 2 한 책, 한 시카고(One Book, One Chicago)

시애틀 시의 ‘시애틀 온 시민이 책 한권을

같이 읽는다면(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 프로젝트가 '한 책'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한다면, 시카고 시의 '한 책, 한 시카고(One Book One Chicago)'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운동을 미국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 책'이라는 이 독서운동의 이름도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8월 25일 시카고 시와 시카고 공공도서관은 온 시카고 시민으로 하여금 9월 한 달 동안 Harper Lee의 '앵무새 죽이기(To Kill a Mockingbird)'를 읽고, 10월 8일부터 14일 사이에 열리는 시카고 도서주간(Chicago Book Week: City of Book Readers)에 참여하여 토론하도록 초청하였다. 이로써 시카고 시 전체가 하나의 도서 클럽 '한 책, 한 시카고(One Book One Chicago)'로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CPL 2003c).

시카고 공공도서관은 두 개의 지역 도서관, 75개의 지역 분관 및 해롤드 워싱턴 도서관 센터로 구성된 대규모의 도서관으로서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 모든 도서관에 이미 비치되어 있던 1,200부에 추가할 수 있도록 영어, 스페인어, 폴란드어 등으로 된 '앵무새 죽이기' 2,000부를 구입하였다. 아울러 지역의 서점들은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여분의 '앵무새 죽이기'를 갖추어 두었는데, 실제로 8월초부터 이 지역의 Barnes & Nobles, Borders 등 주요한 서점 체인에서 이 책은 베스트셀러 상위 10위내에 들게 되었고, Amazon.com 등 전국적 온라인 서점에서도 판매고가 급증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CPL 2003h).

도서의 선정

시카고 공공도서관은 시카고와 같이 크고 다원화된 도시에 적합한 도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도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대중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기보다는, 시카고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이 집중적 토론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추어 결정하도록 하였다:

- 시카고 시민들/사람들이 매일 다루는 보편적인 문제들을 반영한다
- 소설/비소설을 포함하여 다양해야 한다 (반드시 베스트셀러일 필요는 없다)
- 다른 언어로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쇄본으로 널리 구할 수 있어야 한다(도서관과 서점들이 수천 권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게 적합해야 한다
- 시카고와 연관이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들에 연결하기 쉬워야 한다 - 성인 독서토론 그룹, 작가의 방문, 연극, 영화, 전자도서 등
- '도발적인 토론(provocative discussion)'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CPL 2003e).

맨 처음으로 선택된 '앵무새 죽이기'는 시카고에서 나온 책이어야 한다는 기준에는 맞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의 편견과 이해, 용서, 인종, 성별 갈등 등을 포함하여 '인종주의와 관용'이라는 시카고와 오늘의 세계에 관련된 보편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되었다.

도서 선정 기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도서가 연극, 영화 등 다른 프로그램에 연결하기 쉬워야 한다는 조건이다. 실제로 그레고리 펙과 로버트 듀발 주연으로 영화화된 '앵무새 죽이기'는 이미 미국 영화의 고전 반열에 올라서 있어, '한 책' 운동을 위하여 책 자체에 대한 친근감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한 텍스트 읽기라는 개념을 추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작품을 연극으로 공연하고, 소설의 핵심적 내용인 탐 로빈스의 재판 장면을 지역의 법률가들이 모의재판으로 재현하기도 하였다(CPL 2003f). 이처럼 독서보다 영상 미디어에 더 익숙한 세대에게 유인을 제공하고, 현장감을 증폭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미디어의 도움을 추구하는 것도 독서 운동이 개방적인 문화적 경험으로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책, 한 시카고'를 위하여 지금까지 선정된 도서들은 하나 같이 이른바 '문제의식' 혹은 '문제적 주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다. Elie Wiesel의 'Night'은 나치 시대의 유대인 대학살(Holocaust)이라는 민감한 역사적 주제를 다루었다. 2002년 가을의 선정 작품인 Lorraine Hansberry의 *A Raisin in the Sun*은 1959년에 뉴욕에서 초연된 희곡으로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 최초의 흑인 작품이며, 흑인이 제작한 작품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으면서, 당시에 주류사회에서 외면되었던 흑인문화, 세대간 갈등, 계급 차이, 여권 문제, 흑인사회와 그들의 과거의 관계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2003년 선정된 *The Things They Carried*는 월남전 참전 용사인 작가 Tim O'Brien이 월남전에 참가한

한 보병소대의 병사들의 정신적 세계를 주제로 한 단편소설집이며, *My Antonia*는 1880년대 네브라스카의 Red Cloud 마을에 정착한 이민자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 2004년 봄에는 Stuart Dybek의 *The Coast of Chicago*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보편적으로 격동의 시대를 관통하는 미국의 다양한 경험을 그림으로써, 이 '한 책' 운동이 목표로 하는 '도발적인 토론'을 촉진하기에 적합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 및 토론 지침과 자원

시카고 공공도서관은 '한 책' 프로그램을 위하여 광범위한 자료를 개발하였고, 이들을 웹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 안내서이다. 예를 들어 '앵무새 죽이기'를 위해서는 모두 16p.로 된 자료 안내서를 제작하여, 78개의 도서관과 지역의 서점들에서 40,000부를 배포하였다. 시카고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은 작가와 소설 내용, 소설 토론 질문 및 추천할 만한 권장자료 리스트를 만들기 위하여 문학비평, 전기 참고자료, 검색 엔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의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였다. '앵무새 죽이기' 자료 안내서에는 시카고 시장 Richard M. Daley, 작가 Harper Lee, 영화의 주연이었던 Gregory Peck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고, 저명한 시카고 시민들이 한 말, 프로그램과 특별행사의 일정표, 저자의 약전과 소설의 역사적 맥락, 1960년에 소설이 처음 나왔을 때 <Chicago Tribune>지에 실렸던 서평, 토론질문과 활동 지침, 추천 자료, 감사의 글 및 프로그램 평가양식이 실려 있다. 또

한 추가로 '온라인 자료 안내(Resource Guide Online)'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 웹상에서 자료 안내서의 주요한 내용을 볼 수 있게 하였다(CPL 2003a).

또한 프로그램의 종료 후 성과를 요약한 최종보고서를 웹상에 올려주고 있는데, 현재에는 '앵무새 죽이기'와 'Night'에 관한 최종보고서(CPL 2003i)만 수록되어 있다. '앵무새 죽이기'의 최종보고서는 '한 책' 운동의 취지, 도서 선정 기준과 과정, 기획과 발전, 활동의 시간표, 자원 안내의 제작, 독서토론, 모의재판, 영화 상영 마라톤의 일정과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원래 작가를 초청하여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 했으나 작품 발표 후 은둔하는 Harper Lee를 대신하여, 이 작품의 전문가인 Claudia Durst Johnson을 초청하여 진행한 여러 행사의 내용과 일정, '한 책' 프로젝트의 홍보와 마케팅, 제반 비용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인 도서 대출과 판매 통계, 프로그램 참여자 수 및 대중의 반응을 정리해 주고 있다.

제시된 통계에 따르면 시카고 공공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3,678권의 '앵무새 죽이기'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던 7주 동안 모두 6,500회 대출되었고, 이는 통상 동일한 기간 동안 140회 정도 대출되었던 것에 비하면 대단한 증가폭을 보인 것이었다. 이 대출 통계는 지역의 서점과 전국 온라인 서점 네트워크에서 '앵무새 죽이기'의 판매고가 유례없이 급증했던 것과 더불어 대대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도서관에서 진행된 28회의 독서토론에는 평상시의 월 평균보다 두 세배 늘어난 참가자 수를 보였고, 모의재판, 영화 상영 마라톤 등의 행사에도 '넘

치는(overflow)' 참가자가 왔음을 보고하고 있다(CPL 2003h).

후원과 홍보

시카고 공공도서관이 스스로 평가한 것처럼 '한 책' 프로젝트는 미국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수많은 도시와 마을로 하여금 유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려고 시도하도록 전국적 유행에 불을 붙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는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매우 체계적이고 대대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이 있었고, 별개의 행사인 '한 책' 운동과 '시카고 도서주간'을 함께 홍보하고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개발 부서 직원들은 목표 청중인 시카고 시민들 속으로 파고들어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시의회, 지역사회 기반 단체, 종교기관, 신문사, 문화단체와 시민지도자에게 편지를 발송하였고, '당신은 앵무새를 읽고 있습니까?'라는 2p.짜리 전단을 3천부 배포하였으며, 옷핀을 만들어 나누어주고, '한 책, 한 시카고' 핫라인을 설치하여 홍보자료 요청, 프로그램 및 작품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에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앵무새 죽이기' 프로그램은 시카고의 지역 미디어 채널 뿐 아니라 전국 네트워크 및 국제적 미디어로부터 대대적인 '떠들썩한 리뷰'를 받아 널리 홍보되었다.

앞서 시애틀의 '한 책' 운동과 마찬가지로 시카고의 '한 책' 운동도 시의 지원과 더불어 여러 재단, 기업, 단체, 개인의 후원으로 재정을 충당하였다. 특히 스타벅스 커피회사의 시

카고 본부와 파트너십을 맺어 커피숍 60개소에서 안내지를 배포하고, 시내의 5개소에서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앵무새 죽이기' 독서토론을 개최하며 무료로 다과를 제공하는 등 협력하였고, 서점인 Borders Books & Music, Barnes & Noble, 지역사회단체인 Girl Scouts of America, Literacy Chicago 등도 독서토론 미팅을 진행하였다.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은 12개의 청소년 독서토론을 위하여 300권의 책을 기증하기도 하였고, 시카고 법률협회와 미국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이 모의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더해 주었다.

'한 책, 한 시카고' 운동은 시민으로 하여금 '책을 구하라! 읽어라! 독자안내서를 구하라! 토론하라!'는 단계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운동은 다양한 인구집단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지닌 대도시에 '한 권의 위대한 책'을 통하여 독서와 토론의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이후 매년 두 차례의 '한 책' 읽기가 정착된 매우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다.

2.3 캘리포니아주의 '분노의 포도' 읽기 (Reading 'The Grapes of Wrath')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문학 위원회(California Council for the Humanities, CCH)는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과 캘리포니아 도서 센터와 협력하여 온 캘리포니아 주민이 2002년 10월 한 달 동안 John Steinbeck의 1962년 노벨상 수상작이며 캘리포니아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 '분노의 포도'를 읽자고 하는 프로젝트 '분노의 포도 읽기(Reading the Grapes of Wrath)'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CCH가 주관하는 'California Stories'의 일환으로서 시작되었고, "지역사회를 공고히 하는데 있어서 이야기(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CCH 2003a).

도서의 선정과 행사

'분노의 포도 읽기'에서 '이야기'는 스타인벡의 작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되어 독자들이 갖고 있는 삶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다. 실제로 '분노의 포도'를 읽는 것과 더불어 10월 동안에 진행된 여러 행사의 주제로 제시된 키워드들을 보면, 이 프로젝트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였던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오늘날의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와 그 역사; 노숙자; 인권; 이주노동; 노동자 권리와 노동조합; 검열, 지적 자유 및 미국헌법; 및 스타인벡.

'분노의 포도 읽기'를 위해서는 2002년 10월 한 달 동안 캘리포니아 전역의 184개 도서관에서 거의 1,000개에 이르는 개별적인 행사가 열렸다. 각 도서관마다 대부분 십여 가지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한 수준으로 진행되었고, 주 전체를 위한 이 프로젝트를 매우 특색 있게 만들었다. 주요한 행사의 예를 들면, 샌라피엘 공공도서관이 후원한 십대를 대상으로 한 수필 콘테스트, 프레즈노 카운티 도서관이 후원한 24시간 독서회(readathon) 등과 같은 특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다. 새크라멘토 공공도서관

은 18개의 프로그램을 후원하였는데, 이는 이 도서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시행된 행사 중의 하나였다. 그 가운데 문학상 수상 작가이며, 공영방송인 PBS NewsHour의 논평자인 새크라멘토 출신 Richard Rodriguez의 대담에는 300명이 참가하였고, Dorothea Lange의 사진 전문가인 Jan Goggins의 발표회, 캘리포니아의 텔레이 지역에서 건포도농장을 운영하는 작가이자 농부(그리고 전 CCH 이사회 의장이었던)인 David Masumoto와의 저녁 등이 있었다.

샌디에고 공공도서관은 'The Totilla Curtain'의 작가인 T.C. Boyle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였고, 이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베트남 출신 주민을 대상으로 베트남어로 진행한 '분노의 포도' 독서토론을 포함하여, 모두 30여 개의 프로그램을 가졌다. 그리고 콘트라 코스타 도서관은 십대들의 poetry slam을 포함하는 37개의 행사들을 후원하였다. 치코 시에서는 80여 명의 사람들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기들의 가족 이야기를 썼고, 수많은 주민이 독서 마라톤의 일환으로 스타인벡의 책을 낭독하기 위하여 동네의 상점가에 모여들었다. 캘리포니아 주립 문서보관소에서는 '분노의 포도' 시대인 대공황기의 캘리포니아 주민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자료를 전시하였다. 로스앤젤레스의 The Getty Center에서는 당시를 기록한 사진작가 Dorothea Lange의 작품 전시회가 열렸고, KCET 텔레비전에서는 작품에 영감을 주었던 라몬트 지역의 Arvin Federal Camp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영하였다(CCH 2003c, 2003e). 이와 같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진행된 다양한 행사를 평가하며, CCH의 관장인 Jim Quay는 "사람들은 스타인벡의 책을 읽을 뿐 아니라, 자기들의 이웃들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문제들을 토론하기 위하여 함께 왔다. 우리는 이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모든 다른 파트너들이 수행한 일들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 공공도서관들이 한 엄청난 일을 또한 기쁘게 생각한다"고 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언급하였다.

'분노의 포도 읽기'는 주로 청소년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어린이들도 그 작품의 주제에 기초하여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즉 어린이들이 시를 짓는 기술과 '분노의 포도'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인 이주자의 경험에 관하여 배우는 시 워크숍을 열거나, 예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분노의 포도' 책표지를 디자인하거나, 책에서 영감을 받은 이미지를 묘사하는 장면 세트를 만들기도 하며, 캘리포니아로 여행하는 지도를 만들게 하는 등,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기 자신, 부모 및 조부모의 가족사와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경험을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어린이들도 이 프로젝트의 주제를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CCH 2003d).

독서 및 토론 지침과 자원

CCH도 웹 사이트에 '분노의 포도' 연장통을 만들어 다양한 참고 자료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여기에는 지역사회에서 파트너십을 만드는 요령, 프로그램과 활동의 아이디어, 독서 토론 그룹의 조직 방법, 이 작품에 관련된 주

제 분야의 주요한 학자들의 명단, 필름 목록, 참고 도서 등의 목록,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전단 등의 홍보자료 및 토론 안내서를 수록하였고, 주지사인 Gray Davis가 캘리포니아 주 전체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선언한 내용과 각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언문 사례문안을 수록하고 있다. 토론 안내서는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및 한문), 일본어, 한국어, 베트남어 및 아랍어 등 모두 8개 언어로 만들어 다운로드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민족 및 인종집단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주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토론 안내서의 주요한 내용은 '분노의 포도' 독서 요지와 함께 '독서의 즐거움, 이주 이야기, 풍경과 토지, 정치와 사회, 소설의 도덕적 세계'의 다섯 개 영역에서 생각해 볼 질문을 너댓개씩 각각 담고 있다(CCH 2003g).

이들 자료 가운데 독서토론 그룹의 조직 지침은 시애틀에서 '한 책' 운동을 위하여 작성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CCH 2003f). 동반 도서 등의 목록은 CCH와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이 편찬한 것으로 스타인벡이 쓴 'The Harvest Gypsies'를 비롯하여, 다양한 민족 집단이 캘리포니아에 이주하여 살면서 겪는 경험을 그린 25편의 비소설 도서, 8편의 소설을 포함하고 있다. 필름 목록에는 영화와 다큐멘터리 7편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존 포드가 감독하고 헨리 폰다가 주인공인 톰 조드로서 연기하였던 1940년 작 '분노의 포도' 영화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Woody Guthrie의 'Dust Bowl Ballads' (Buddha, 2000) 등 1930년대 당시를 주제로 한 대중적 음악의 음반 5종, '분노의 포도' 전

문을 낭독한 오디오북(Penguin Highbridge Audio, 1998), 14종의 소설 및 비소설 어린이용 도서를 포함하고 있다.

후원과 홍보

'분노의 포도 읽기' 프로젝트에는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였지만, 대학, 노동단체 및 문화와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수많은 다른 기관, 단체가 참여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토니상 수상자인 연극 '분노의 포도'를 일주일간 공연을 조직하고 제작한 로스앤젤레스의 L.A. Theatre Works가 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의 평생교육원은 30여년간 저명한 사진작가 Sebastiao Salgado와의 저녁을 후원함으로써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출판사인 Penguin Books사는 초기의 프로그램 후원자가 되어 캘리포니아 서점들에 전시물, 포스터 및 책갈피(bookmark)를 제작하고 배포하였다. Penguin사는 또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늘어나고 있는 라틴계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보다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분노의 포도'를 처음으로 스페인어판으로 간행하였다. 그밖에 많은 저명한 개인과 단체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이들 가운데에는 캘리포니아의 미연방 상원의원 2명, 하원의원 24명, 캘리포니아 주지사 Gray Davis, 캘리포니아의 25개 도시의 시장 및 무수한 시공무원들, 작가인 Arthur Miller, 연기자이자 영화감독인 Rob Reiner, 방송인 Maria Schriver, 연기자 Dennis Hopper와 가수 Jackson Borwne을 포함하는 예술과 연예계의 저명인사들이 포함되었다.

'분노의 포도 읽기'가 갖는 의의는 시카고

나 시애틀과 같은 한 도시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커다란 지역사회에서 '한 책'을 읽는다는 동일한 문화적 체험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참여한 도서관이 무려 180여 개에 이르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CCH의 재정 지원을 받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을 볼 때, 적절한 동기가 부여되기만 하면, 도서관과 지역사회는 한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분노의 포도 읽기'는 다른 도시 단위의 '한 책' 운동과는 달리 한 번의 행사로 종료되었지만, 이후 오클라호마 주, 버지니아 주 등에서도 주 단위의 '한 책' 운동을 매년 추진하는 사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2. 4 캐나다의 'Canada Reads'

'Canada Reads'는 캐나다의 라디오 방송국인 CBC Radio가 2002년부터 캐나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작한 '한 책' 운동이다. 대부분의 '한 책' 운동이 시, 주 등의 지역사회와 공공도서관이 주최가 되는 것에 비하여 'Canada Reads'는 방송국과 그 자체 프로그램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여러 행사에서 도서관이 행사장소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Canada Reads'의 주체는 역시 주요한 도시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과 더불어 자체적인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 CBC Radio라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도서의 선정과 행사

'Canada Reads'는 그 해 온 캐나다인이

읽도록 최종 선정되는 도서를 Edition이라고 부른다. 'Canada Reads'의 첫 해인 2002년에는 *The English Patient*의 작가인 Michael Ondaatje의 *In the Skin of A Lion*을 선정하였고, 2003년에는 Hubert Aquin의 *Next Episode*, 2004년에는 Guy Vanderhaeghe의 *The Last Crossing*을 선정하였다. '한 책' 운동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도시가 단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읽게 하는 것과는 달리 'Canada Reads'는 다섯 권의 책을 중심적인 읽을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 한 권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기까지의 과정 자체를 라디오로 방송함으로써 모든 청취자 혹은 독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경험으로 만들고 있다. 꽤 널리 참여한 다섯 사람의 저명한 예술문화계 인사들이 선정한 책들 가운데 한 권을 그 해의 Edition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선정되지 않은, 다른 네 권의 책들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하고, 낭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방송하며, 그 작가들도 이 행사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등, 보다 다양하고 광범한 책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읽도록 권장한다는 특색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에는 소프라노인 Measha Brueggergosman가 추천한 *The Love of a Good Woman*(Alice Munro 지음), 위니펙시의 시장인 Glen Murray가 추천한 *Green Grass, Running Water*(Thomas King 지음), 영화제작자이자 저널리스트인 Francine Pelletier 추천 *Le coeur est un muscle involontaire*(*The Heart is an Involuntary Muscle*) (Monique Proulx 지음), 음악가인 Jim Cuddy 추천 *The Last Crossing*(Guy Vanderhaeghe 지음), 및 작가인 Zsuzsi

Gartner가 추천한 Barney's Version (Mordecai Richler 지음)을 선정하였고, 닷새 동안 패널리스트들이 토론한 끝에 2004 Edition으로는 *The Last Crossing*을 선정하였다(CBC 2004b).

또한 시민들은 'The People's Choice'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기들이 선호하는 책을 투표할 수 있다. 2002년과 2003년에 사람들로 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어 'People's Choice'로 선정되었던 작품은 각각 Rohinton Mistry의 *A Fine Balance*와 Wayne Johnston의 *The Colony of Unrequited Dreams*로 둘 다 그 해의 'Canada Reads' Edition과는 다른 책들이었던 한편, 2004년에는 처음으로 'Canada Reads' Edition과 같은 책인 *The Last Crossing*이 선정되었다.

'Canada Reads'의 공식 웹 사이트에는 매우 다양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그 가운데, 'Canadians Recommend'는 캐나다의 문화, 예술, 사회, 정치, 교육계 등의 저명인들이 추천한 도서의 목록을 수록하고, 그들의 추천사를 오디오 클립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 준다. 2003년에는 작가이자 방송인인 Arthur Black, 올림픽 선수인 Claire Carver Dias, 피아니스트 David Jalbert, 캐나다 대법원장 Beverley McLachlin 등 모두 29명이 추천한 도서가 소개되었다(CBC 2003a). 2004년에는 선정 작품 *The Last Crossing*에 대한 인터랙티브 안내서인 'The Interactive Journey'를 만들어 작품 속의 지명, 내용에 관련된 이미지와 역사적 사실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본문의 일부를 낭송해 줌으로써 관심을 북돋을 수 있게 하고 있다.

'Canada Reads'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처럼 공익적 라디오 방송국이 주도하여 행사를 주관함에 따라 매우 다양한 오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하여, 오락이 아닌 문화와 문화에 대한 관심, 특히 캐나다 작가의 작품에 대한 독서와 이해를 진작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2002년, 2003년에 선정되었던 다섯 편의 소설은 각각 'Canada Reads (Dramatically)'라는 제목의 시리즈로서 극화되어 방송되었고(CBC 2003e), 2004년의 다섯 작품도 역시 Canada Radio One의 'Read between the Covers'를 통하여 방송되었다. 2003년의 'Canada Reads'는 3월 3일에 CBC Radio에서 사람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권장하는 캐나다 저명인사 다섯 사람의 오디오 클립을 방송하기 시작하면서 개시되었고, 켈거리, 살럿타운, 위니펙, 토론토 등 캐나다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토론회, 작가의 작품 낭송회, 패널 토론의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특집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었다. 동시에 캐나다 작가조합(The Writers' Trust of Canada)이 주관하는 "문학적 풍경과 문학적 장소(Literary Landscapes and Literary Sites)"라는 주제의 캐나다 도서주간(Canada Book Week 2003: 4월 21일-27일) 행사가 열렸고, 캐나다 전역에서 모든 연령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CBC 2003c). 2004년에도 여러 도시에서 시민들이 독서 클럽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선정 작품들에게서 영감을 받은 예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독서와 토론을 강조하였던 다른 도시의 '한 책'과는 달리 작품의 '읽기'와 더불어 '듣기'

를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Canada Reads'의 두드러지는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거의 백만의 캐나다인들이 맹인이거나 시각장애자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점자나 청각자료와 같은 형태로 'Canada Reads' 책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캐나다 국립맹인협회(The Canadian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와 같은 기관과도 협력하여 오디오북을 제작하고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독서운동으로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한 책' 운동의 현황과 특성

위에 든 주요한 도시의 '한 책' 운동 사례들과 더불어, 2004년 6월 현재 미국국회도서관 '한 책' 웹 사이트에 등록된 239개 '한 책' 운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 책' 운동의 핵심적 의미는 어디에서든 독자가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할 뿐만 아니라, 그 책 자체나 주제, 작가 등에 연관된 영화, 연극, 전시회와 같은 여러 행사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독서의 경험이 바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확장시켜 주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독서운동이라고 하여도 배타적인 텍스트로서의 책을 읽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 영화, 연극과 같이 다른 매체로도 같은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참여를 보다 북돋을 수 있도록 시도

하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캐나다에서 라디오 방송이 'Canada Reads' 운동을 주관하기도 하며, 다양한 정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극화된 문학작품의 텍스트를 제공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 책' 운동이 단발적, 일회적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도서관들에서 이미 지속적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2002년 이후에 '한 책' 운동을 시작하였으나, 다수가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계속하고 있어, 그 누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년에 두 번 4월과 10월에 '한 책' 운동을 수행하는 시카고시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한 차례 수행하므로 아직 완전한 통계는 얻을 수 없으나, 2004년 5월 현재 239개 '한 책' 프로젝트에서 절반에 이르는 118개가 이미 2004년 행사를 진행하였다.

셋째, '한 책' 운동은 지역마다, 프로젝트마다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 같은 개별적 특성은 도서의 선정, 프로젝트 명칭의 선택, 지역적 행사의 진행 등의 여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대부분의 '한 책' 운동이 성인 독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영국의 브리스톨 시처럼 어린이와 어른 모두 읽을 수 있는 '보물섬'과 같은 명작을 채택하는 사례, 시애틀이나 매사추세츠 주의 마르타스 비니어드의 'One Book -- One Island' 처럼 어린이와 어른을 대상으로 각각 책을 선정하고, 동시에 프로젝

트를 진행하는 사례, 뉴저지 주의 ‘One Book New Jersey’가 2004년에 다른 연령 별로 *The Body of Christopher Creed*, *The Pine Barrens*, *Because of Winn-Dixie*와 *How the Cat Swallowed Thunder*라는 4권의 책을 선정한 것과 같은 사례도 눈에 띈다.

- 지역마다 매우 다양한 작가를 선정하고 있다. 2004년 6월 현재까지 ‘한 책’ 운동을 위해 선정된 책은 모두 221종으로 Mark Twain의 두 작품, *The Adventures of Tom Sawyer*와 *Puddn’head Wilson*이 아이오와 주의 Davenport, 미네소타 주의 Duluth, 그리고 뉴욕 주의 Jamestown에서 각각 선택되었고, John Steinbeck의 네 작품, *The Grapes of Wrath*, *Of Mice and Men*, *The Pearl*와 *Travels with Charley*, *In Search of America*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하여, 여덟 개의 도시에서 각각 선택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백여 작가의 작품이 각각 하나씩 선정되어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읽혔다.
- 그러나 어떤 작품은 ‘한 책’ 운동에서 선호되었다. Harper Lee의 ‘앵무새 죽이기’는 시카고의 ‘One Book One Chicago’에서 선정된 이래, 2004년 7월 현재까지 스물다섯 개의 다른 지역 ‘한 책’ 운동에서 선정되어 읽혔다. 예를 들어, 2004년에도 오하이오주의 클러몬트와 보울링 그린에서 이 책을 택하였고, 버지니아의 페어팩스 카운티는 올해 처음으로 ‘All Fairfax Reads’를 시작하면서 이 책을 읽었다. 한편 9.11테러 이후 자유와 안보라는 주제에

대한 주제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되었던 베스트셀러 Ray Bradbury의 *Fahrenheit 451*가 캘리포니아 주의 로스앤젤레스, 실리콘 벨리, 플로리다주의 잭슨빌, 팜 비치 등 모두 18개 ‘한 책’ 운동에서 선정되었고, Ernest J. Gaines의 *A Lesson Before Dying*(1997)도 18개 지역사회에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도 번역서로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Mitch Albom의 *Tuesdays with Morrie*(2001)와 Lief Enger의 *Peace Like a River*(2001)는 각각 11개 지역사회의 ‘한 책’ 운동에서 선정되었다. 그밖에는 Kent Haruf의 *Plainsong*(1999)이 일곱 군데에서 선정되었고, Barbara Ehrenreich의 *Nickel and Dimed: On (Not) Getting by in America*(2001), James McBride의 *The Color of Water*(1996), Lois Lowry의 *The Giver*(1993), Jessamyn West의 *The Friendly Persuasion*(2003), Rich Bragg의 *All Over But the Shoutin’*(1998)이 각각 여섯 군데에서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책들은 한두 군데에서만 선정되었다.

- 221권의 선정 도서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한 23권의 책을 간략히 분석한 결과, 출판시기별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출판시기별로는 캔사스 주의 로렌스시에서 청소년을 위해 선정된 Avi의 *Nothing But the Truth*(2003), Alan Siporin의 *Fire’s Edge*(2002)와 같은 2000년대 최근 작품이 8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Tom Wolfe의 *The Right Stuff*(1979), James Welch의 *Fools Crow*(1986), Ray Bradbury의 *Dandelion Wine*(1999), Lorene Carey의 *The Price of a Child*(1996) 등 1970~90년대의 작품이 12권, Mark Twain의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1876)를 비롯하여, John Steinbeck의 *Travels With Charley, In Search of America*(1962), H.E. Hinton의 *The Outsiders*(1967)와 같은 고전적 작품들도 다양하게 선택되고 있다.

- 또한 이들 작품은 미국의 유인 우주선 프로그램을 다룬 논픽션 소설(*The Right Stuff*), 소련 병사의 시베리아 노동수용소 탈출(Slavomir Rawicz의 *The Long Walk*), 미국 원주민 블랙피트족 전사의 모험(*Fools Crow*), 인종차별과 혐오범죄(Alan Siporin의 *Fire's Edge*), 이란 이민의 생활(Firoozeh Dumas의 *Funny in Farsi*), 멕시코 소녀의 캘리포니아 이주(Pam Munoz Ryan의 *Esperanza Rising*)처럼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대체로 미국 주류사회를 다루기보다는 소수민족이나 다양한 문화와 사회,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였다. '한 책' 운동에서 선정된 모든 책의 특성을 향후 보다 깊이 분석하면 더욱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기에서는 일부를 분석하는 데 그쳤다.
- 여러 '한 책' 운동에서 그 지역 출신 작가의 작품이나,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책을 선택하기도 하고, 특정한 작품

대신 주제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는 2002년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 'One Book/One Texas'에서 텍사스 출신 작가인 Larry McMurtry의 풀리처상 수상작인 *Lonesome Dove*를 선정하였고, 2004년에는 Stephen Harrigan의 *The Gates of the Alamo*를 선정하였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NC Reads NC'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출신 시인과 그들의 작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편, 오클라호마 주도 'Oklahoma Reads Oklahoma'라는 주제로 2007년 주의 백주년을 맞이하기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Canada Reads'도 매년 그 나라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 같이 책을 선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한 책' 운동이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문화적 체험'을 공유하는 가운데, 그 지역사회의 문화와 특성에 대하여 보다 깊이 이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한 책' 운동의 명칭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콜로라도 주 덴버 시의 'One Book, One Denver,' 플로리다 주의 'One Book, One Community,' 콘네티컷 주의 'One Town, One Trilogy: One Book at a Time' 등과 같이 '한 책'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가 하면, 일리노이 주의 'Peoria Reads,' 'Princeton Reads Together,' 캔사스 주의 'United We Read'처럼 온 지역이 같이 읽는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켄터키 주의 'What If

All Kentucky Reads the Same Book,' 'If All Buffalo Read the Same Book'과 같이 시애틀의 '한 책' 운동에서 유래한 긴 이름도 눈에 띈다. 그러나 앨라배마 주에서 이 운동에 참여한 네 개의 도시가 'Get Caught Reading' (Huntsville), 'Mobile's Book: A Shared Experience' (Mobile), 'One Book' (Bay Minette), 'Same Book, Same Time' (Decatur)이라고 각각 다른 이름을 붙이고 있거나, 오레건주의 유진의 'Readin' in the Rain',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North Coast Neighbors Share a Book',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의 'GO READ'처럼, 개별 지역사회마다 특색 있는 이름을 선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책' 운동의 가장 큰 의의는 공공도서관이 책 한 권을 들고 지역사회의 핵심으로 파고 들어가며, 동시에 이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개인, 학교, 각급 기관과 시민 단체들로 하여금 도서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독서와 토론, 행사의 진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한다는 사실이다. Watkins는 '한 책'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면서,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문학작품을 함께 읽고 함께 토론하자고 하는 책을 중심(centerpiece)으로 한 순수한 형태가, 가끔은 명백히 시가 주연이 되고, 책은 조연이 되는 모습으로 변화하기도 함을 지적하였지만 (Watkins 2003a), 특히 시카고시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공공도서관이 속한 지역사회, 주로 시 자체의 적극적 협조가 성공적인 '한

책'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한 책' 운동에서 도시, 주, 국가와 같은 지리적 지역사회의 개념으로 암시되고 있던 공동체(community)의 의미는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미국도서관협회의 연례 컨퍼런스에서는 행사의 일환으로 'One Conference, One Book'을 모토로 삼고 미국, 캐나다 및 세계에서 모여든 2만여 사서들로 하여금 캐나다 작가 Margaret Atwood의 *The Handmaid's Tale*를 읽도록 독려하였고(Watkins 2003b), 흑인계 인문대학인 윈스턴-세일럼 주립대학에서는 *What Use Are Flowers*를 학생들이 읽게 함으로써 한 책을 읽는 대학이라는 공동체의 개념을 복돋았다. 그 의의에 대하여 이 대학 도서관 서비스 디렉터인 Mae Lodney는 공동체의 소속감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지역사회의 형성을 장려하며, 어떤 경우에는 민감한 안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열게 하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Rodney 2004).

4. 결 론

미국의 한 도시 시애틀에서 처음 싹이 트고, 시카고 '한 책, 한 시카고'의 성공적 수행에 따라 미국 전역과 다른 나라로 퍼져나간 '한 책, 한 도시' 운동은 공공도서관,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이 독서와 토론을 통한 문화적 체험이라는 한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일깨웠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십세기 후반

정보사회의 급격한 환경 변동에 따라 디지털 정보와 영상 매체에 몰입한 대중에게 '다시 책으로'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Watkins가 "(책이든 다른 어느 것에 대해서든) 종종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이야기하게 한다"고 지적한 것처럼(Watkins 2003a) 고립된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통된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매우 개혁적이며 성공적인 독서운동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998년 시애틀에서 처음 시작된 '시애틀은 시민이 한 권의 책을 읽는다면', 2001년 전국적 확산의 도화선이 된 시카고의 '한 책, 한 시카고', 2002년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180여개의 도서관이 동시에 수행한 '분노의 포도 읽기' 및 2002년부터 캐나다 전국에서 열리는 'Canada Reads'의 사례와 미국국회도서관 도서 센터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239개의 '한 책'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한 책' 운동은 독서운동이면서, 독자가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할 뿐만 아니라, 그 책 자체나 주제, 작가 등에 연관된 영화, 연극, 전시회와 같은 여러 행사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독서의 경험이 바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확장시켜 주고 있다
- '한 책' 운동은 '한 책'이라는 동일한 구심점을 갖고 있지만, 지역사회마다 매우 다양하게 창의적인 형태로 수행되고 있

다. 그 같은 개별적 특성은 도서의 선정, 프로젝트 명칭의 선택, 지역적 프로그램과 행사의 진행 등에서 나타난다.

- '한 책' 운동은 많은 도서관들에서 전국적인 '선봉적 유행'에 편승한 단발적, 일회적 행사가 아닌 지속적, 안정적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등록된 239개 프로젝트 중 많은 수가 2002년 이후에 시작되었지만, 이미 절반이 2003년에 이어, 2004년 행사를 진행하였다.
- '한 책' 운동의 주체인 공공도서관은 책 한 권을 들고 지역사회의 핵심으로 파고 들어간다(Outreach). 그러나 공공도서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개인, 학교, 각급 기관과 시민 단체들로 하여금 도서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독서와 토론, 행사의 진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고, 그들의 긴밀한 후원과 협력이 있어야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한 책' 운동에 참여하는 도서관의 수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라호마주, 텍사스주 및 캐나다에서처럼 동시에 수많은 도서관이 참여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실제로 239개의 등록되어 있는 '한 책' 프로젝트의 수보다 훨씬 많다. 또한 이러한 '한 책' 운동을 통하여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독자들이 책을 읽게 되었는지, 정확한 통계는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주요한 몇몇 사례를 통해 관찰된 결과는 매우 성공적인 독자층의 확대를 보고하였고, 대부분의 지역사회에서도 그럴 것이라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국내에서도 서산,

부산, 순천 등에서 수행된 '한 책' 운동이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책을 읽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책' 운동은 책 읽는 시민을 수적으로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의 개념을 확대시키고 있다. 한 도시만이 아니라 주(州)나 국가와 같은 큰 단위의 지리적 공동체에서 한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한

편, 학교, 대학, 일터와 같이 어떤 형태의 공동체에서도 어디에서든 함께 한 책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독서의 문화를 복돋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책 읽는 시민을 만들기 위해,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큰 공동체까지 사회의 구석구석에 '한 책' 운동이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참 고 문 헌

- 박미희. 2004. '한 도시 한책 읽기 운동' 서산시 시범사업 사례. 『2004 서울 국제도서전 세미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운동 경과와 향후 발전과제 모색』, 2004년 6월 4일. [서울: COEX 컨퍼런스 센터].
- 부산광역시 교육청. 2004. '책 읽는 시민, 생각하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BBS(Busan Book Start) 범시민 독서생활화 운동. 『2004 서울 국제도서전 세미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운동 경과와 향후 발전과제 모색』, 2004년 6월 4일. [서울: COEX 컨퍼런스 센터].
- 양동희. 2004. '책 한 권, 하나의 순천' 추진. 『2004 서울 국제도서전 세미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운동 경과와 향후 발전과제 모색』, 2004년 6월 4일. [서울: COEX 컨퍼런스 센터].
- 윤정우. 2004.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해외의 동향. 『圖書館文化』, 45(6): 25-33.
- _____. 2004. '한 도시, 한 책' 운동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출판문화』, 464: 22-23.
- 이권우. 2004.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성과와 과제. 『圖書館文化』, 45(6): 22-24.
- 한국도서관협회. 2003.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서울: 동 협회.
- California Council for the Humanities (CCH). 2003a. "Reading "The Grapes of Wrath" attracts thousands of people across the state." [cited 2003.5.17]. <http://www.calhum.org/programs/grapes_retrospective.htm>.
- California Council for the Humanities (CCH). 2003b. "Programs and Activity Ideas: Programs for Adults and Teens." [cited 2003.5.17]. <<http://www.calhum.org/programs/>>.

- grapes_ideas2.htm>.
- California Council for the Humanities (CCH). 2003c. "Programs and Activity Ideas..." [cited 2003.5.17]. <http://www.calhum.org/programs/grapes_ideas4.htm>.
- California Council for the Humanities (CCH). 2003d. "Programs and Activity Ideas: Programs for Children." [cited 2003.5.17]. <http://www.calhum.org/programs/grapes_ideas3.htm>.
- California Council for the Humanities (CCH). 2003e. "Special Events." [cited 2003.5.17]. <http://www.calhum.org/programs/events/events_special.htm>.
- California Council for the Humanities (CCH). 2003f. "How to Set Up a Book Discussion Group." [cited 2003.5.17]. <http://www.californiastories.org/programs/grapes_discussion.htm>.
- California Council for the Humanities (CCH). 2003g. "A Discussion Guide: for Steinbeck's "Grapes of Wrath"." [cited 2003.5.17]. <http://www.californiastories.org/downloads/Korean_final.pdf>.
- CBC. 2004a. "Have you marked Canada Reads? February 16 through 20, 2004." [cited 2004.7.24]. <http://www.cbc.ca/canadareads/pressreleases/CanadaReads2004_2.pdf>.
- CBC. 2004b. "Canada Reads *The Last Crossing*." [cited 2004.7.24]. <http://www.cbc.ca/canadareads/pressreleases/CanadaReads_winner2004.pdf>.
- CBC. 2003a. "Canada Reads 2003: Which Books Should Canada Reads?" [cited 2003.6.21]. <<http://www.cbc.ca/canadareads>>.
- CBC. 2003b. "Canada Reads: Panel Discussion." [cited 2003.6.21]. <<http://www.cbc.ca/canadareads/paneldiscussion.html>>.
- CBC. 2003c. "Canada Reads: Schedule." [cited 2003.6.21]. <<http://www.cbc.ca/canadareads/schedule.html>>.
- CBC. 2003d. "Canadians Recommended." [cited 2003.6.21]. <<http://www.cbc.ca/canadareads/famous.html>>.
- CBC. 2003e. "Canada Reads Dramatically." [cited 2003.6.21]. <http://www.cbc.ca/canadareads.cri_2002/onair2.html>.
- Chicago Public Library (CPL). 2003a. "Resource Guide Online." [cited 2003.5.9] <<http://www.chipublib.org/003cop/onlinebook/resources.html>>.
- Chicago Public Library (CPL). 2003b. "*To Kill a Mockingbird* by Harper Lee.

- Resource Guide Online. Press Kit.” [cited 2003.5.9]
<<http://www.chicagopubliclibrary.org/003cpl/pressroom/obocpresskit/obocpk.html>>.
- Chicago Public Library (CPL). 2003c. “*To Kill a Mockingbird* by Harper Lee. Resource Guide Online. Press Kit. Chicago Book Week: City of Big Readers, One Book, One Chicago.” [cited 2003.5.9]
<<http://www.chicagopubliclibrary.org/003cpl/pressroom/obocpresskit/about.html>>.
- Chicago Public Library (CPL). 2003d. “*To Kill a Mockingbird* by Harper Lee. Resource Guide Online. How to Conduct Your Own Book Discussion.” [cited 2003.5.9]
<<http://www.chicagopubliclibrary.org/003cpl...>>.
- Chicago Public Library (CPL). 2003e. “*To Kill a Mockingbird* by Harper Lee. Resource Guide Online. Introduction.” [cited 2003.5.9]
<<http://www.chicagopubliclibrary.org/003cpl/onebook/mockingbird.html>>.
- Chicago Public Library (CPL). 2003f. “*To Kill a Mockingbird* by Harper Lee. Resource Guide Online. Book Discussion and Special Events.” [cited 2003.5.9].
<<http://www.chicagopubliclibrary.org/003cpl/onebook/bkdiscuss.html>>.
- Chicago Public Library (CPL). 2003g. “*To Kill a Mockingbird* by Harper Lee. Resource Guide Online. Discussion Questions and Activities.” [cited 2003.5.9].
<<http://www.chipublib.org/003cpl/onebook/questions.html#activities>>.
- Chicago Public Library (CPL). 2003h. “*To Kill a Mockingbird* by Harper Lee. Resource Guide Online. Fall 2001 Final Report.” [cited 2003.5.9].
<<http://www.chicagopubliclibrary.org/003cpl/pressroom/onebookfinal.html#1>>.
- Chicago Public Library (CPL). 2003i. “Final Report: *Night*. Spring 2002 Final Report. *Night* by Eli Wiesel” [cited 2003.5.9].
<<http://www.chicagopubliclibrary.org/003cpl/oboc/nightfinal/nightfinal.html>>.
- Library of Congress, The Center for the Book (LC). 2004a.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cited 2004.5.18].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html>>.
- Library of Congress, The Center for the Book (LC). 2004b.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list by authors.” [cited 2004.6.16].
<<http://www.loc.gov/loc/cfbook/one>

- bookbyauthor.html>.
- Michalik, Candice. 2003. "One book, one city, one great experience!." *Virginia Libraries*, 49(4): 7-9.
- Rodney, Mae L. 2004. "Building community partnerships: The "One Book, One Community" experience." *C & RL News*, 65(3): 130-2, 155.
- Sumner, Ward. 2004. "One Jackson, One Book." *Mississippi Libraries*, 68(1): 3-5.
- Washington Center for the Book at The Seattle Public Library (SPL). 2003a. "Mission statement." [cited 2003.5.9]. <<http://www.spl.lib.wa.us/wacentbook/seattleread/centbook.html>>.
- Washington Center for the Book at The Seattle Public Library (SPL). 2003b. "Background." [cited 2003.5.9]. <<http://www.spl.lib.wa.us/wacentbook/seattleread/background.html>>.
- Washington Center for the Book at The Seattle Public Library (SPL). 2003c. "A Reading Group Toolbox for the Works of Chang-rae Lee." [cited 2003.5.9]. <<http://www.spl.lib.wa.us/wacentbook/seattleread/chang-rae/toolbox.pdf>>.
- Washington Center for the Book at The Seattle Public Library (SPL). 2003d. "Previous Years' Featured Works." [cited 2003.5.9]. <<http://www.spl.lib.wa.us/wacentbook/seattleread/samebookarchive.html>>.
- Washington Center for the Book at The Seattle Public Library (SPL). 2003e. "What If All Kids Read the Same Book? Study Guide." [cited 2003.5.9]. <http://www.allkidsread.org/studyguide_oles.pdf>.
- Washington Center for the Book at The Seattle Public Library (SPL). 2004. "Seattle Reads Isabel Allende." [cited 2004.5.17]. <http://www.spl.lib.wa.us/wacentbook/seattleread/SeattleReadsAllende_2004.pdf>.
- Watkins, Christine. 2003a. "Grassroots report: Hundreds of communities, hundreds of books." *American Libraries*, 34(2): 55.
- Watkins, Christine. 2003b. "Grassroots report: One country, one conference, one book." *American Libraries*, 34(3): 83.